

이부영 지음/『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국적 원초적 심성에 대한 과학적 심리학적 해석

이 상 일*

내 무속 탐구와 이교수와의 인연

한국의 샤머니즘과 융의 분석심리학 하면 어울릴 계제가 없어 보이는 원초성과 현대성으로 인해 학문적 체계도 그만큼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울리기 어려운 원시와 현대과학과 같은 관계의 표출이 글 쓰기를 더 어렵게 한다.

나 같은 인문학과 출신에 시인이 되고 싶었던 고희(古稀)의 연극, 무용 평론가 따위가 일류 석학의 저서에 서평 형식이라는 명분을 붙여 알은체 한다는 것 자체가 한참 외람되고 참월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부영 교수와의 인연으로부터 실타래를 풀어 나가자---내가 1967년 처음 스위스 연방정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취리히 유스티누스하임에 집을 풀었을 때 풍관 아름답기로 소문난 알프스 호반 도시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 했다. 나는 성균관 대학 전임교원으로 있으면서 뒤늦게 독문학 분야의 드라마 연구를 위해 취리히 극장 감독 겸 평론가 로버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늦깎이 학생으로 ‘문화적 충격’을 몸으로 때워나가야 할 처지였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생활에 익숙하고 세계적인 융 연구소 연구원이자(그곳이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는 새까맣게 몰랐지만) 근교의 융 연구소 정신병동 의사였던 이 교수는 시골 출신 서울 유학생 같은 나와는 엄연한 신분상 차이가 있어서 연령적으로도 훨씬 윗 세대이겠거니 나는 지레 짐작했다. 종교장학재단에서 운영하던 외국인 숙소인 유스티누스하임 관장인 기거 선생의 그에 대한 찬양도 나

의 무지를 부채질했다.

취리히 도착 후 일주일 쯤 지나 그가 출장이었던지, 휴가에서인가 돌아와 우리는 처음으로 취리히 호수를 내려다보는 레스토랑에서 포도주 한 잔 하며 대면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서로 50년대 초기 학번 출신이며 어쩌면 서울대학 문리대나 의대 교정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그대로 내가 성대 전임교수 자격이라는 사실을 평가해 주었으므로 새삼스럽게 학생 신분으로 격(?)이 떨어져 기가 죽어 있었던 ‘촌놈’이나도 조금은 콧대가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한국 샤머니즘과 융의 분석심리학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의 첫 대면에서 나는 상담비도 내지 않은 채 하나의 방향 제시를 그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 공연예술의 시원에 있는 춤과 연극 연희의 무속적 것거리 부문에 대한 시사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취리히 대학 연수 시절에는 막스 프리쉬나 뒤렌마트 같은 스위스 출신 현대작가들과 이화(異化)효과의 브레히트 현대극 수법에 매료당하면서 한편에 인문학 일변도였던 내가 스위스 민속학과 참여관찰 방법을 적용하는 인류학적 필드워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설화적 심성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교수는 스위스 연수 체재 이전부터 한국 샤머니즘을 연구했고 이후 줄곧 학계 세미나나 강연 등 논문발표를 통해 업적을 쌓아 나온 반면, 나는 1970년대 초 귀국 이후 연극평론 활동과 함께 향토축제와 무속의 연희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에서 당대의 신진학자들이었던 김태곤, 최길성 등과 어울리게 되고 석학 임석재, 김동욱, 이두현 교수들의 뒤를 따라 다녔다. 내 공연예술 평론활동의 지적 수원(水源)을 놓치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귀국 후 서울의대 교수로 자리 잡은 이부영 교수와 서강대학 김열규 교수 등과 개인적 접촉도 잦게 했다. 그렇게 1970, 80년대 계엄령 등으로 스산한 대학풍경 가운데서 내 30년 교수 재직기의 알찬 추억은 이 교수와 한국무속 현장 답사로 얽혀 있다.

분석심리학을 한국문화에 적용시킨 개척자

--- 각설하고 그렇게 이부영 교수와 김열규 교수와 나는 함께 『한국사상의 원

천』 공동집필자 노릇도 했다. 『한국민담의 심층분석』으로 그의 전문영역인 분석심리학을 한국문화에 적용시켰던 이 교수는 한 때 꽤 오래 서울대 의대 정신과의 교수로서의 본분 때문에 한국 전통문화 영역에 대해 거리를 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 정년 퇴임 이후 한국 용 연구원을 설립하고 분석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정착에 전념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드디어 760쪽에 달하는 대저(大著)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2012년, 한길사)로써 한국문화, 내지 세계문화의 원초성과 현대과학의 첨단지식을 조화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어 냈다. 이 체계화 작업인 그 저서를 통해서 그가 확 인코자 하는 것은 “분석심리학의 상징해석을 통해 샤머니즘의 여러 관념과 현상이 우리 마음속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러한 물음은 과학자, 학자의 안목 이전에 인간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성실한 탐구의 첫 출발이 되고 있다.

좀 우스개 소리 같지만, 말하자면 분석심리학이라는 현대과학의 방법론으로 한국인의 잠재의식을 읽어 내겠다는 이 내면적 야심은 우리 선대(先代)의 동양 선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유/불/선 사상의 도인이나 신선의 경지와 맞닿는 사유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보면, 얼마 동안 못 만났던 이부영 교수를 다시 대면하면 괄목(刮目)상대할 정도로 그가 도인이 되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나이 들면서 도통해 가서 세속사회의 번잡함을 털어내면 주변의, 나 같은 속물들은 별로 재미없어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국 무속 공부를 통해서 현대 공연예술의 연극이나 무용의 원초적 예술 형태에 대한 지적 이해를 확대시켜 나가고 내 평론활동의 지적 배경으로 삼는 현장 체험처럼 근원이 되는 샤머니즘적 원초성과 다기(多岐)하게 전개되는 삶의 현상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을 그려낸다. 원초성과 근원에 대한 인식이 그 다양한 전개양상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사조와 어떤 맥락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이교수의 『한국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 새삼 큰 도움이 안 될 수 없다. 문화예술 사조와 관계없이 그가 밝히려는 것은 샤머니즘을 통해 보는 인간심리이고 그것은 곧 ‘나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벌거벗겨서 내던져놓고 보편적 인간심리로 다가가는 제1장에서 시작하여 제3장까지는 한국무속의 입무과정-신병과 내림굿 등 무속제의절차에 관한 이 교수의 민속인류학적 이해와 안목을 드러내는 것으로 필드워크

위주, 혹은 관념적 이데올로기적 설익은 민속학자들의 좁은 시야를 크게 확대시킨다. 그러다가 제4장 ‘귀령현상과 그 심리학적 상징성’, 제5장 ‘한국민간의 질병관 및 정신병관’, 제6장 ‘한국민간의 정신병치료’에 이르면 분석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로서의 조사대상 자료 추출(그 가운데는 고대문헌까지 포함되어 있다), 분석, 고찰 등 본격적인 과학자의 면목이 빛을 발한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문헌 분석, 다른 문화현상과의 비교 고찰 같은 역사학자, 인류학자가 거쳐야 할 몫까지 담당하면서 이 교수는 정신병이라는 질환을 사유형식의 탐구로 확대해 낸다. 그것은 민족적 질병관에 반영된 인간 무의식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그의 학문 체계-그런 분석심리학적 방법론의 특성은 ‘원시적 관념과 현상을 구체적 현실이라기보다 미지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상징들로 이해하는 것’(p.204~5)이고, 미지의 현상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합리주의자의 과학정신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 점에 있어서 학자적 편협성을 극복한 저자의 인간적인 폭에 전적인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질병관이 그 사회에 통용되는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 등 그 민족 특유의 문화적 바탕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미개한 전통사회의 통념을 한마디로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나 같이 오만한 지성은 ‘설명 불가능’이라는 의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개개인의 무의식 내용에 첨가되는 원초적 사유가 어찌면 ‘긍정적 카오스’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나는 나의 좁은 신화적 지식으로 헤아린다. 신화를 탄생시키는 천지창조의 원초적 혼돈상태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역사시대로, 무에서 유(有)로 넘어가는 긍정적 카오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머니즘의 혼과 영, 영혼과 정신의 구분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질병관은 대체로 자연의 순리와 질병으로, 귀신의 분노, 신벌, 복수로, 그리고 귀신의 체내 침입 혹은 방의, 끝으로 영혼의 상실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연의 순리와 질병은 현대적으로 풀면 환경 파괴 같은 질서와 조화의 상실이 기본개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과학적 진단이라면 나머지 항목은 이른바 ‘미신적’이라는 불합리성을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 질병관에서 출발하는 ‘정신병’과 ‘정신병관’은 무의식의 심리학과 질병관의 심리학적 상징성으로 요약(p.244~246)된다. 원시적 질병관의 두 양식인 실혼과 빙의, 영혼과 정신에 대한 융의 분석심리학적 의견은 한국사머니즘 사회의 질병관과 귀령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경우는 혼과 영, 곧 영혼과 정신의 구분이 모호해 보인다. 그런 판단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해 나오고 있는 개념 규정의 애매성이라든지 불확실성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점을 지적한 이 교수는 병귀의 빙의냐, 혼의 유리냐의 문제보다 병귀의 성질과 계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적 태도 등 종합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어 놓는다. 뿐만 아니라 실혼의 질병관이 우세한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주로 귀령의 범접이 우세한 한국사머니즘의 질병관을 비교할 때 혼의 마술적 비상, 해체의 관념을 토대로 한 시베리아 샤먼의 문화양식과 빙의, 신 내림의 관념을 배경으로 한 한국 무속문화 양식의 심리적 특정 추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지적해 낸다. 한국 융이언의 분석심리학적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신병에 대한 민간치료 일반을 보면 거처를 옮긴다거나, 구병기도, 위령, 병귀 퇴치 등이 주술적 치료방법으로 행사되었으나 원시적 치병의 ‘치료’ 측면에서 보면 정신병은 재앙, 불행, 빈곤과 연결된 현상, 곧 현실적인 인과관계에 있음을 밝혀 준다. 재앙은 병이며 병은 재앙이고, 모든 ‘굿’은 치병의식(p.305)이라는 총괄적인 고찰은 고찰의 시도 자체가 ‘자세한 사실적 기록과 면밀한 문헌적 검토가 태부족인 실정’ 하에서 누군가 선행적으로 언급했어야 할 과제였다.

제7장 ‘빙의현상과 증후’, 제8장 ‘무속신앙과 정신장애’ 항목이 사례 분석의 전문적 분석에서 오는 읽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반면 제9장 ‘죽음, 저승, 사령과 살’, 제10장 ‘굿과 정신치료’는 전문의의 사례 제시와 고찰 분석을 건너뛰면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무속을 꿰뚫고 흐르는 문화적 단층을 파악할 수 있는 모티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 저승에 대한 희미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무가 죽음의 말과 ‘차사본풀이’에서 보여 주는 죽음과 사령과 저승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의식의 전승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내용, 특히 집단적 무의식도 만날 수 있다.

한국 샤머니즘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된 ‘해체의 고문과 죽음’같은 입무절차

상의 천상 비행 모티브를 엿보게 하는 안목, 그리고 저승 길목에서 거듭되는 시련과 통과의례를 거친 재생 모티브와 지하세계 여행 모티브 같은 맥락을 읽어내게 하는 서사무가의 재건작업은 신화학자들이나 국문학자들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한국 샤머니즘이 놓치고 있는 필드이다. 어린 수호신 명도의 해명이나 바리공주 해석도 분석심리학자의 안목이라서 그 자체로 흥미롭다. 살(煞, 殺)에 대한 해석도 ‘내면의 살, 죽이는 자에 대한 무의식성’(Unbewusstheit)이라서 신경정신과의 이부영 교수는 치료란 ‘무의식성을 인식하고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그 때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는 그의 목소리는 글자 그대로 깨달은 도사가 아니면 신선의 경지에 가 있는 듯하다.

어설픈 분석심리학자를 양산할 위험한, 이해하기 쉬운 큰 업적

샤머니즘 같은 원초적 심성에 바탕을 둔 현상들을 현대과학으로 해석하는 융 분석학자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하는 데 대한 비전문가의 관심은 이번 저서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의 경우도 읽는 도중 내내 지워지지 않는 물음이었다. 그 대답은 제10장 ‘굿과 정신치료’에서 어느 정도 뚜렷해진다. 샤먼의 치병에 대한 양가적 감정, 곧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이 원시 민간치료의 정신치료적 효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데 비해 정신과의사나 정신분석가들은 샤먼의 치료효과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통찰요법으로 수용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을 A. Kleinman의 말로 요약한다: ‘샤먼은 질환(illness)을 치유(healing)하고 의사는 병(disease)을 치료(treat)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어떤 특수한 사회에서 얻은 사실을 무조건 모든 사회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치유(cure)라는 말도 종교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고, 정신치료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통찰요법은 전인격의 변화를 목표로 해서 정신치료의 철학과 목표가 학파마다 다르다고 한마디로 딱 규정을 짓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제11장 ‘한국 샤머니즘과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성’ 및 제12장 ‘한국 민간신앙과 윤리의식’, 제13장 ‘무속문화를 배경에 둔 환자와 정신과 치료’, 제14장 ‘샤머니즘과 한국인’, 그리고 에필로그 ‘샤머니즘을 넘어서’로 해서 이 대저(大著)는 마무리된다.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돈 되어 있고 학구적 자료와 서술적 에피소드들, 그리고 정신과의의 과학적 진단 결과가 읽히기 쉽게 기술, 편집되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적인 관심이 아니어도 겁 없이 읽어나가다 보면 끝장 ‘에필로그’의 장을 닫으며 괜히 일개 비전문 독자가 용이언 분석심리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도 생기게 하는 것이 이 연구 저서의 매력이다. 내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성’, ‘민간신앙과 윤리의식’, 및 ‘샤머니즘과 한국인’을 읽으면서 이 교수가 이른바 무속문화를 “합리주의와 이성의 건조한 지대를 뚫고 나와 저 신화적 세계로 비상하고자 하는 인류가 가진 오랜 그리움의 발현”(p.699)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원초성의 샤머니즘을 현대 첨단과학의 냉엄한 시각으로 연구 탐색하는 반면 예술가의 따뜻한 감성으로 보듬어 내는, 이런 관용의 정신은 무속문화의 수준을 신화적 서사무가(敍事巫歌), 제의절차 현장의 교술(敎術) 무가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샤머니즘 연구체계 속에서 잃어버린 그림자인, 인류의 오랜 그리움의 발현을 지적해 내었다는 의미에서 그 결론이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지적이 바로 시집 『서정무가(抒情巫歌)』의 출발 포인트가 된다. 꿈의 본향이며 민족심상의 근원이자 수원지에 강력한 광원(光源)이 비추어짐으로써 ‘그리움의 발현’이 어떤 문화적 콘텐츠로 성숙 발전되어 사회적 에너지로 확산되어 나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